

전북도, 외국인 인재 정착지원 '이끄미' 발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12명 위촉 SNS 활용 전북 정보 모국어 홍보 '정착 선배' 비자 취득 멘토링 활동

도는 지난 28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이끄미 발대식'을 열고, 도내 외국인 인재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이끄미' 12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전북에서 생활하며 겪었던 정착 과정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전북에 정착할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민이 직접 정책을 알리고 경험

을 공유하는 참여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촉된 이끄미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12명으로, 베트남·네팔·스리랑카·중국·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 6개국 출신이다. 이들은 전주·정읍·김제·고창·부안 등 도내 5개 지역에 거주하며, 다문화 활동과 통역 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과의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지역특화형 비자와 전북 생활정보를 모국어로 제작·홍보하고,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 홍보, 생활정보 번역 등 다양한



<사진=전북도>

활동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스리랑카 출신 이끄미 안자나 씨는 "처음 전북에 왔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먼저 취득한 선배로서 모국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끄미들의 생생한 경험과 모국어 소통 역량은 새롭게 전북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군산·김제·부안 민주당 지역위 정비

前 시장·군수 연락소장 선임 사무국장 현역 지방의원 배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군산김제부안 지역구의 김제연락사무소장에 박인희 전 김제시장, 부안 연락소장에 이병학 전 부안군수를 선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단체장과 현역 지방의원을 전면 배치해 주민 밀착형 지역조직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제 사무국장에는 재선 김제시의원인 오승경 의원, 부안 사무국장에는 전북도의원 당선인 김창현 당선인을 각각 임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현직과 주민 목소리를 중앙정치와 국정에 신속히 연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 조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이어 "지역위원회는 선거 때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결과"라며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성찰과 혁신을 통해 주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읍·면·동협의회장 인선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지역위원회 조직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선관위 특검 당론으로 추진"

책임자 처벌 촉구 이어 특검 추진 "당 내일까지 원구성 비상대기" 국힘 배제 단독 처리 시사



한병도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조특위에 이어 특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잠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조에 이어 특검 추진을 요구해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선관위 개혁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관

리위원회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당이 선관위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국민의 힘은 상임위 명단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분회의 준비에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국힘을 배제하고 원구성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로서 책임은 헌신

짝처럼 내던지고, 법사위원장 자리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며 "무려 11차례나 만나 협상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국민의 힘을 직격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제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를 잡아주실 국민은 없다.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내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 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오늘과 내일, 이번 달 안에 후반기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민생 입법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대표 발의

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근거 회복프로그램 국가 지원 명시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수요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정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시·도 및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률적 배치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아

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정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정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김의겸 군산산단 전력공급난 해결 물꼬 터

입주업체-한전 긴급 간담회 개최 한전 "기한 내 전력 공급" 약속



김의겸 의원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증설 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미장동 지역사무소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업체 대표단과 한전전력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보를 받았다"는 요청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는 최근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인 A사가 "송전선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한전으로부터 공장 준공 기한에 맞춘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요청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향후 군산조선소에서 본격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 신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한전이 정확한 수요 예측은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군산 및 새만금 산단은 지난 2023년에도 기업의 입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로 지역사회 우려를 낳은 바 있다. 한전 측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호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에 초기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토로

했다. 한전 측은 "산업단지 내 전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해 완벽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A사 사정을 고려해 기한 내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변압기 신설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군산·새만금 산단의 고질적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매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

되는 건 산업여건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를 바라면서도 정작 인프라 마련을 위한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한 불은 꺼지만 궁극적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인프라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가전제품 화재예방 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연기나, 타는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하지 말고 해당업체에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멀티콘센트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뺐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꽂까지
꽂아 주세요

전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 복지 연계 체납 행정 추진

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

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해 세정과, 교통안전과, 상하수도본부, 완산구·덕진구 세무과, 여성가

족과, 건설과 등 시·구청 9개 부서에 각각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을 전담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앞서 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해소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특히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시민 중심의 체납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중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마쳤다. /정소민 기자

'한옥애플 양파' 대만 전역에 공급

전주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1080 상자 총 16.2톤 선적

'한옥애플 양파' 수출 선전식이 29일 개최되며 우리 지역 양파가 대만 전역에 공급된다. 전주시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세에 농업인들의 시름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파 수출은 힘을 잃었던 농가들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대만 전역에 공급될 '한옥애플 양파'는 전주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다. 이날 양파 1080 상자(16.2톤)가 선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양파 생산량 증가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양파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옥애플 양파' 수출 선전식 <사진=전주시>

출하 물량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옥애플양파는 대만 수출에 앞서 현지관계인 대만 수출 요구 사항들에 대해 그 우수성을 모두 충족하며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옥애플 양파는 우수한 품질관리 선별 과정을 거쳐 수출길에 올랐다. 한옥애플양파의 이번 수출을 계기는 대만 소비자들에게 전주시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시는 지역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수출 검역 △안전점검사 비용 지원 △수출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온오프라인 행사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감 전 '사용' 당부

전주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간 마감을 앞두고 조속한 신청 및 사용을 당부했다. 현재 전주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시민 소비 여건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순환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

를 위해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 70%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기준, 전주시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시민 463,006명 중 98%인 453,529명이 신청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신용·체크카드 발급액 약 553억원 88.6%인 약 490억원, 전주시사랑상품권 발급액 약 50억원 87.0%인 약 4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 상승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원금의 빠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

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며 각 동별 통장을 통한 △미신청자 신청 안내 △우편 및 유선 연락 등 신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계해 시는 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 유통 차단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사용을 방지 등의 올바른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진흥원 'XR·AI' 국방훈련 전술훈련 협력 강화

진흥원-㈜편잇-태국DTI '맞손' 지역 가상융합·AI 기술기업 아세안 국방시장 진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렛)이(대표 최인형)은 태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Defence Technology Institute, 이하 DTI)와 국방 AI 및 시뮬레이션 기술(SimTech)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태국 DTI는 태국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현지 방위산업 기술 고도화와 국방 분야 연구개발을 수

행하고 있다. 편잇은 XR 기반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AI Vision 기반 훈련평가, 3D 공간컴퓨팅 및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해 온 전주지역 유망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인 편잇이 보유한 XR·AI 기반 실감형 훈련 기술과 태국 DTI의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연계해,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방분야의 미래형 교육·훈련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MOU를 통해 △AI 기반 국방훈

련 분석 및 평가 기술 공동연구와 기술 연계 △XR·MR 기반 전술훈련 시뮬레이션 개발 및 실증 협력 △M&S(Modeling & Simulation) 분야에 적용 가능한 SimTech 기반 가상훈련 체계 구축 지원 △3D 공간 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의 국방훈련 분야 적용 △국방 교육·훈련 콘텐츠 공동 개발 등 국방 AI·M&S·SimTech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편잇은 AI가 훈련자의 행동, 자세, 이동 경로, 상황 대응 능력을 정밀 분석하고, 가상훈련 종료 후 정량적 평가

결과를 자동 제공하는 '지능형 훈련평가 기술'을 중심으로 DTI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교관 중심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 데이터 기반 차세대 국방 훈련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진흥원은 올해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로 확대·전환된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가상융합기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

팔복동 지역특성 활성화 제안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 발굴

전주시 '2026년 제2회 전주시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다가온다. 신청은 내달 20일까지 전자우편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이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작품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공모전은 △전주시 주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하며 덕진구 팔복동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연결에서 공간을 재편하다: SOLID·GAP·BUFFER'로 산업·주거·자연·문화가 공존하는 팔복동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공간디자인과 지역 활성화 방



안을 제안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개인 또는 최대 5인까지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등 총 5팀에게 전주시장상이 수여된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전주시 도시재생에 대한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향후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관계기관 방향공유·체감·실효 강화

전주시 '2026년 상반기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서비스 본인부담 확인 절차, 회계 처리 유의사항 등이 공유되며 기관별 통합돌봄 제공서비스 상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는 29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의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통합돌봄은 행정기관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너지형 돌봄체계를 만들어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 삶 영위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경찰서-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탈북민 정착 지원 기반 마련

전주덕진경찰서가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9일 조영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안보자문협의회장 및 관계자 30여명과 '2026 상반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추진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경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의와 상반기 경찰서 주

요 활동사항을 공유하며 탈북민 위한 명절 위문품 지원 및 의료·법률 자문 서비스 확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안착 등 협력치안 발전에 기여한 회원 3명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보자문협의회와 전주덕진경찰서가 긴밀하게 협력해 탈북민 정착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지속적인 정착지원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간호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전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실천봉사 활동을 펼쳤다. 관련해 29일 전북대병원 간호사회는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등록 취약가정을 찾아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는 방임 및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위생 환경에 노출된 아동과 가족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삶 영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간호사회원들은 4개 조로 나눠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집안 내부의 목은 때를 청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가졌다. 활동 참여에는 전북대간호사회 회원 29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3회 취약가정 위생 관리 위한 주거 환경 유지금 100만원 상당의 생활 물품 등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전문 방역 서비스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여름 휴가철 7월 1일~8월 31일까지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여름 휴가철인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단속은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6.28일 기준) 강력한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1.8%감소(144건→127건)하고 부상자 수 또한 27.5%감소(258명→187명)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취약 시간대와 장소 중심을 1급지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일, 2·3급지 경찰서는 주 3회 이상 상시 단속을 실시해 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매주 목, 금요일에는 분청·도경주관 출근길 숙취단속과 야간 일제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장소로는 휴가철 주요 유흥지와 관광지, 유흥가·변화가, 고속도로 주요

TG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30분 단위로 장소를 신속하게 변경하는 이동식(스팟형) 단속을 적극 활용해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약물 측정을 병행해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음주운전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단속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재생에너지 안전' 워크숍

공사계획신고 단계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난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청주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에서 지자체 공사계획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안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시공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신고 및 사전기술검토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자체와 공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화영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지난 25일 청주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에서 공사계획 신고 담당자 대상 안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기원, 고추 탄저병 '적기 방제' 당부

장마철 고온다습한 기후 탄저병 확산 우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고추 탄저병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6~8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온다습한 환경은 탄저병 병원균이 증식하게 되는 최적의 조건으로,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생산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고추 탄저병은 강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빗방울이 튀면서 병원균 포자가 인근 열매로 확산되며, 발 내부의 습도가 높을수록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

감염 초기에는 과실에 오목하게 들어간 짙은 초록색 점이 생기고, 점차 병반이 커지면서 병원균의 포자 덩어리가 겹무늬 모양으로 형성돼 상품성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탄저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비가 오기 전, 병 증상이 없더라도 열매 표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감염된 고추나 잔재물은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한다. 비바람에 의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재배지 밖으로 멀리 버려 병원균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환경과 최소라 과장은 "고추 재배



전북농기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고추 탄저병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다. <사진=전북농기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상공인 "기업하기 좋은 전북 경제 도약 민선9기 출발"

현대차 투자 후속조치 앵커기업 유치 1순위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기업들은 현대차 투자협약의 후속조치와 앵커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핵심 인프라 확충 등을 민선9기 전북 경제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전북 인구 감소 및 청년 인재 유출(32.2%), 타 지역 대비 투자유인책 부족(22.4%), 신성장동력 부재(18.3%), 인프라 및 입지 경쟁력 부족(1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미래산업과 인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성장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금융·세제 등 자금 지원 강화(24.8%)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22.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피지컬 AI·미래 모빌리티(31.4%)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26.2%)이 꼽혔다. 이어 전주~세종·전주~무주 광역 고속

도로망 확충(17.0%),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16.6%) 순으로 나타났다.

민선9기 지방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현대차 투자협약 후속조치 및 앵커기업 유치(29.5%)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청년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18.0%), 피지컬 AI 등 산업 생태계 강화(14.7%), 공공기관 추가 이전(1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민선9기에 기대하는 것은 현대차 투자협약의 후속조치와 앵커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장전략이 추진될 때 전북의 투자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민선9기는 현대차 투자협약의 후속조치와 앵커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미래산업 육성, 청년 정주,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전북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민선9기 전북 경제 도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남원지사 '사회공헌활동' 동참

한전 남원지사가 호국보훈대상자 가정 나눔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한창이다.

한국전력공사 정연일 남원지사와 이동호 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남원시 주천명 소재 호국보훈대상자 가정을 찾았다.

이들의 가정 방문은 호국보훈의 달(6월) 보훈대상자 대상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의 나눔실천 위한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전 남원지사 사회공헌활동 중심에는 △식료품 △생활용품 등 가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구성됐다.

아울러 공헌활동과 더불어 방문한 가정 어르신들의 건강 살피기 위한 △소통 △가정 불편 사항 점검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한전 남원지사 나눔실천 공헌활동 성금에는 남원지사 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한전 남원지사는 매해던 호국보훈의 달 또는 설·추석 명절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보훈대상자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전 남원지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시민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 /김영태 기자

북익산농협 농가주부모임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실시

북익산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안순례)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농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을 집중 수거해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에 발 벗고 나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안순례 회장은 "농번기 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들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 농촌을 지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NH농협금융 '전략산업금융' 지원

'NH금융허브' 운영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전북을 선정하고 농협 그룹 차원의 종합 지원에 나선다.

농협금융은 3분기 내 NH-Amundi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와 더불어 'NH금융허브(가칭)'를 출범하고 전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찬우 회장은 "전북은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NH금융허브(가칭)를 통해 계열사 역량을 모아 전북이 핵심 금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NH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의 사무소(2025년 말)비수도권 61.2%를 보유하고 있고 농촌·중소도시 중심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국적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 항공·해양·방산 종합지원센터(2026년 4월), 전북 NH금융허브(가칭)에 이어 앞으로도 5극3특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 모델을 검토해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K-Food 스캐일 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은행에서는 지역 내 농식품 기업 대상 컨설팅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전북 익산) 입주 기업 대상으로 농식품기업 특화 기업대출·무역금융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찬우 회장은 "전북은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NH금융허브(가칭)를 통해 계열사 역량을 모아 전북이 핵심 금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NH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의 사무소(2025년 말)비수도권 61.2%를 보유하고 있고 농촌·중소도시 중심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국적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 항공·해양·방산 종합지원센터(2026년 4월), 전북 NH금융허브(가칭)에 이어 앞으로도 5극3특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 모델을 검토해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제5차 '치유농업 포럼'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헬스케어 산업 연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5차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치유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는 치유농업 포럼위원,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 치유농장, 치유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공동연구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서 반응형 농업 활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형 치유농업과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과 멀티오믹스 융합

기술의 치유농업 연계 방안((주)셀키에이아이 박근욱 소장) △운동·재활 영역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술의 치유농업 접목 방안(건양대학교 박대성 교수)을 다루는 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 토론회에서는 산업, 의료, 원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인공지능·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과 치유농업 융합 방안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의견을 나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치유농업이 인공지능, 건강관리 산업과 연계해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치유농업이 첨단 기술과 융합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효과를 체감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K-뷰티 사우디 진출'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주사우디대사관은 K-뷰티 사우디 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9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K-뷰티 지원사업 모집은 K-뷰티 중소 브랜드사 사우디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사우디는 적극적인 개방정책 시행과 함께 여성 사회진출 확대 등에 힘입어 K-뷰티 기업에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에서 우리 기업은 사우디 내 유통·판매망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 등과 협업을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 브랜드사에는 사우디 현지 유통매장과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제품 홍보·마케팅 △정부 규제 대응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사우디 최대 뷰티(Beauty)·웰

니스(Wellness) 제품 유통망인 화이트스(Whites)를 비롯한 20여개 현지 유통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이 완료되면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사업 신청 중소 브랜드사들의 서류 평가 및 면담을 거쳐 지원 대상을 직접 선발할 예정이다.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제조업등록필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이번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은 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누리집(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최근 사우디 뷰티 시장 동향 △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데이터 허브' 이관 운영

기존 정책기획과 누리집서 대표 홈페이지로 일원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행정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서 단위로 운영하던 '교육데이터 허브'를 도교육청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이관해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데이터 허브는 교직원들이 교육행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 데이터, 업무 지원 도구, 분석 및 시각화 콘텐츠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기존에는 정책기획과 소속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새롭게 개편·이관된 허브는 데이터 자료실 △데이터 도구실 △데이터 분석실 △데이터 시각화실 △데이터 참고 사이트 등 5개 메뉴로 구성했다. 교직원들은 이곳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는 행정 도구를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접속 주소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누리집으로 바로 이어지는 자동 연결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부서 누리집에 국한됐던 데이터 접근 권한과 경로를 대표 홈페이지로 일원화해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행정 지원 도구와 데이터 분석 자료를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된 허브는 △데이터 자료실 △데이터 도구실 △데이터 분석실 △데이터 시각화실 △데이터 참고 사이트 등 5개 메뉴로 구성했다. 교직원들은 이곳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는 행정 도구를 일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접속 주소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김제시,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공연

공연예술 유통지원 사업 선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지혜와 용기, 가족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동화발레로 선보이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이 이달 10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품으로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북발레시어터가 선보이는 가족 발레극이다. 동화 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은 회오리바람에 실려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소녀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여행길에서 생각하는 뇌를 갖고 싶은 히수아비, 따뜻한 심장을 원하는 양철나무꾼, 용기를 얻고 싶은 겁쟁이 사자를 만나 함께 예메랄드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로,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발레 퍼포먼스와 신비로운 마술쇼, 춤추는 요정들의 무대가 어우러져 어린이 관객은 물론 가족 관객 모두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 마동도서관 '특별한 인문학 여행' 마련

내달 15일부터 풍수지리·한의학 다뤄

익산시가 풍수지리와 한의학을 주제로 전통문화 속 삶의 지혜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특별한 강연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마동도서관에서 내달 15일부터 '2026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기운을 읽고 삶을 다스리다'를 운영한다

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통적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삶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1부 '풍수지리편'은 전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김두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풍수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흐름과

생활 속 공간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주거환경과 삶의 관계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 8월에는 우석대학교 오승운 교수가 진행하는 2부 '한의학편'이 운영된다. 한의학을 통해 건강과 삶의 균형을 살펴보고 인문학적 시각을 한층 넓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마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풍수지리와 한의학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시민들이 삶과 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납량특집 콘서트' 개최

8월 20일 기획연주회 선배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20일 (목)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3회 기획연주회 '납량특집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이명근 예술감독의 지휘로 진행되며, 무소르그스키의 교향시 '민중산의 하룻밤'을 비롯해 존 모스의 '할리우드 블루버스터', 이안 디텔링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존 카렌더의 '할로윈', 존 윌리엄스의 '쥬라기 공원' 등이 연주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예은이 협연자로 나서 프란츠 리스트의 '죽음의 무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협연자인 피아니스트 김예은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후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Euroasia, Ibiza, Iscart 등 국내외의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서초문화재단과 아르테위드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박현자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매년 여름 진행되는 시립교향악단의 브랜드 공연인 만큼, 올해는 클래식 고유의



<사진=군산시>

깊이와 대중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라며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휴식과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전석 5,000원으로 티켓 예매는 6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게시된다.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예매 문의는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익산·정읍 여행 '돌박2일' 공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KBS Kpop 유튜브 콘텐츠 '돌박2일'의 전북 편이 지난 28일 첫 공개됐으며, 후속편은 이달 5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정읍 장금이파크 등 전북의 역사문화자원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대중적인 예능 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박2일'은 KBS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의 파생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기 아이돌이 지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미션과 게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북편에는 걸그룹 '스테이씨(STAYC)' 멤버 6인 전원이 출연해 익산과 정읍 일대의 4색이음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우정 여행 콘셉트 미션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전북편은 출연진이 지역을 여행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담아 전북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아이돌 팬덤을 대상으로 전북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는 여행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돌박2일 콘텐츠로 익산과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고, 앞으로도 전북의 관광자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친근하게 알려지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전북·충남·세종을 아우르는 광역 협력 관광사업으로,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홍보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4색이음'은 지역의 향토문화·문화예술·역사문화·자연휴양 자원을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한 광역 관광상품 브랜드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제11회 시장배 유도대회' 성료

300여 명 기량 펼쳐

제11회 정읍시장배 유도대회가 지난 27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유도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유도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 간 친목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도부부터 일반부까지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경기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중에 따라 세분화된 체급별로 진행됐다. 개인전과 단체전을 비롯해

각 체급 최강자를 가리는 '왕중왕전'까지 치러지며 매트 위 열기를 뽐냈다. 어린 유도부 선수들의 대결부터 일반부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한판승 승부까지 다채로운 경기가 이어져 관중석의 뜨거운 박수를 자아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회가 유도 유망주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탄소중립 실천방안!

<개인이 실천하는 탄소중립!>

<p>Step 01.</p> <p>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이용하고 가까운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이용하기</p>	<p>Step 02.</p> <p>장바구니 사용! 플라스틱, 비닐봉투 장바구니 사용하기</p>	<p>Step 03.</p> <p>스마트 영수증! 종이영수증 대신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전자영수증 받기</p>	<p>Step 04.</p> <p>텀블러 사용! 플라스틱컵, 일회용컵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 하기</p>	<p>Step 05.</p> <p>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순환율이 높은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맨후 따로모아 분리배출</p>
--	---	---	---	---

정읍기적의도서관, 내달 11일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막 올려

정읍기적의도서관이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내달 11일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 권장 음악극 '브레멘 음악대'를 두 차례 공연한다.

공연은 당일 오후 2시와 4시에 열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 명작 동화 원작을 바탕으로 극단 씨앗이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늙고 병들어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협동과 우정, 용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게 꾸며진 점도 특징이다. 다채로운 무대 연출과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를 앞세워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람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비롯한 정보 취약 계층 어린이들도 행사에 특별 초청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 가족들에게는 함께 웃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청년 작가 현대미술 작품 선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박물관 2층에 위치한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오늘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뽀뿌룩 단체전 '유토피아를 떠나며 남기는 편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의 '유토피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이 담긴 청년 작가 4인(김도윤, 문소연, 이이현, 최재웅)의 현대미술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유래한 단어다. 그리스어 'Oυ(없다)'와 'topos(장소)'의 합성어로 본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이상향'의 대명사로 통용된다.

뽀뿌룩의 이번 전시는 유토피아가 가진 이중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이상향을 뒤쫓는 현대인의 무한 경쟁 상황 △편리함에 의해 묵인되는 폭력성 △무목적성으로 편승하는 현대사회의 이상적 풍경 △역설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시스템 △현대인의 소속감과 개인의 정체성 문제 등 우리가 이상향이라 믿어온 것들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유토피아인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작품을 전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유토피아에 안녕을 고하는 청년 작가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동산동 '김밥나라' 착한가게 가입... 나눔문화 확산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9일 김밥나라(대표 염은정)를 방문해 착한가게 협관을 전달했다.

김밥나라는 김밥과 분식, 식사류 등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점이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게 됐다.

착한가게는 매일 3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 캠페인이다. 착한가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이웃애(愛) 돌봄단 △건강업(UP) 밀반찬 지원 △어르신 볼보사진관 △평동~ 빛나는 초인종 달아드림 △아동 소원물품 지원사업 등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김명경 동산동장은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 복지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뒷받침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금융·건강 교육 강화 2(題)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익산시가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익산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극'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국민연금공단 노후관리 전문강사인 윤영섭, 장현석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시드머니 마련과 활용 △1대 1 금융컨설팅 등을 통해 소비 습관과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방법을 배웠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극'은 근로청년이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두 배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특히 익산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자산형성 통장 사업의 후속사업이자 전북특별자치도 확장사업으로, 올해 신규 모집에서는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시는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교육을 연계해 청년들의 금융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창인이 머무르고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 외에도 익산청년시청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익테크'를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가족을 위한 한의학 힐링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내달 7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치매안심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건강 상담과 총명치 미술, 명상, 기공체조 등 다양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의 인지 건강 증진과 심신 안정을 돕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치매가족 지원뿐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관절 튼튼 등을 운영해 높은 참여율과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별 건강 상담과 침 치료, 한의학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기공체조와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을 함께 운영하며 신체 건강과 정서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정서적 돌봄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인지 건강 증진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비 지원

농산물 안정성·경쟁력 강화... 선착순 접수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와 심사비를 연중 지원한다.

GAP 제도는 농산물을 기르고 수확해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최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해당 인증을 확대하고자 토양, 용수, 농산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도 함께 보조해 농가의 경제적 짐을 덜어준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총 169개 농가, 157ha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관련 지원을 마쳤다.

혜택을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년 내내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책정된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GAP 인증을 거친 먹거리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판로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전북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으뜸'

세입 확충 노력 결실 인센티브 1,300만원 확보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세수 규모 1,500억 원 이상인 A그룹 '으뜸(3위)'에 선정돼, 체계적인 세정행정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도세·시군세 징수율, 체납액 정리 실적 등 9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세수 규모에 따라 A·B·C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군산시는 전주시, 익산시에 이어 A그룹 우수 시군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방세 수확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조세교부금 배분조례에 근거한 특별조정교부금 1,3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객·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와 체납 원인별 징수기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정기적인 체납 분석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징수관리, 납세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자기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효율을 높인 점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군산시 시민납세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재정 확충을 위해 밤낮으로 발로 댄 직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집중 점검

146곳 대상 불법 정비 및 중고차 매매 현장 확인

정읍시가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법 정비와 중고차 매매 행위를 막기 위해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14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2026년 2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어졌다. 간단한 시장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 123곳, 매매업 14곳, 기타 업종 9곳을 더해 총

146개 업체다. 시는 전북도검사정비사업조합을 비롯한 관련 조합과 함께 현장을 샅샅이 고개를 향한 필수 고지 사항 이행 여부와 법정 시설, 장비, 기술 인력 확보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 실태와 그 밖의 법정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에 포함했다.

정비업 분야는 정비 표준 시간과 시간당 공인표 게시 여부를 비롯해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제공 상태를 들여다봤다. 매매업 분야는 보증보험 가입과 침수 중고차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계 재활용업의 경우 종사자 교육 이수 상태와 폐유, 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규정을 잘 따르고 있었다. 다만 종합 정비 업체 한 곳이 정밀도 검사에서 불합격해 개선 명령을 받았다. 전문 정비 업체 한 곳은 공인표를 걸어두지 않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박경희 교통과장은 "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 점검을 펼쳐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 진기록 공모전' 3건 선정

이색 기록 관광 자원 활용

정읍시가 지역의 이색적인 기록을 찾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한 '정읍 진기록 공모전'에서 60년 넘게 쓴 일기를 포함한 최종 3건의 기록을 선정해 29일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했다. 지역에서 최고, 최초, 최대, 최다, 최단 등의 성과를 지닌 기록이나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6건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총 3건이 정읍 진기록으로 뽑혔다. 문정업 씨의 '토종 정읍 불개'는 국립추산과학원으로부터 국가 고유 자원 인증을 받았다.

임광직 씨는 1965년부터 60년 이상 일기를 써온 발자취를 인정받았다. 최재근 씨는 21년여 동안 9897시간에 달하는 자원봉사를 실천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기록들은 오랜 시간 한 분야를 꾸준히 이어온 개인의 노력과 지역 고유의 자원,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해당 기록들을 다양한 홍보 자료와 콘텐츠로 개발해 지역 기록 자원으로 쓸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숨은 기록을 꾸준히 찾아내 정읍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소방서, 휴가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다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우려와 휴가철 여객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숙박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먼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난·방화시설 차단 여부와 물건전치 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컨설팅을 전개하고, 밀폐형 영업장에는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당부하고자 화재예방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상순 대응예방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맛집 인증하면 상품권 드려요'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방문한 맛집 후기를 누리소통망(SNS)에 인증하면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돈내산 탐방기' 행사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을 이용한 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누리소통망에 후기를 올리면 다음 달 정읍사랑상품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제한 영수증 금액이 2만원 이상이

면 5000원, 5만원 이상이면 10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상품권 착(Chak)' 응용프로그램(앱)을 미리 설치하고 가입해야 한다. 최우수 후기로 뽑힌 참여자에게는 5만원의 추가금 제공을 계획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추천하는 맛집을 발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주민이 동참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음식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민선9기 군산시장직 인수TF, 성과 공개

민선9기 군산시장직 인수TF(총괄팀장 김재준)는 당선인, 이하 인수TF가 지난 10일 출범 이후 20일간의 활동 경과를 29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총간사 김봉근, 후원대교수가 브리핑을 맡아 재정진단, 공약 검토, 시정목표 수립 등 인수기간 전반의 결과를 설명했다.

△별도 예산 없이 30명 실무행... 재능기부로 꾸린 인수TF 인수TF는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김재준 당선인이 총괄팀장을 직접 맡고, 총간사 1명·분과위원 15명·정책자문단 7명·과건공무원 6명이 함께했다. 분과위원과 자문단은 본업을 유지하면서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별도 수당 없이 운영됐다.

△재정자주도 48.3%·관리채무 206억... 구조적 과제로 진단 군산시의 올해 본예산은 1조5,684억원으로 2021년 대비 25.6%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16.4%에 머물렀다.

재정자주도는 2023년 55.1%에서 올해 48.3%까지 하락했으며, 관리채무는 206억 원이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재원을 시민 체감으로 집행된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전부서 업무보고·20개 우선과제·핵심 공약 선별

인수TF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국소별·전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우선 대응 과제로 선정했다.

△골든타임 사유하는 출산·소아 응급안심망 구축 △도로 역전 현장 침수지역 전수조사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 수용태세 등이 대표 과제로 꼽혔다.

공약에서는 △시정실 1층 이전 △현대차 투자 연계 시장 직속 전담 TF 가동 등을 핵심 우선 추진 사업으로 검토했다.

△시정목표 '시민권도도시' 군산·5대 시정방침 확정 민선9기 시정목표는 '시민권도도시' 군산으로 정립됐다. 시민의 뜻이 시정 전반에 반영되는 군산, 그것이 민선9기가 그리는 군산의 모습이다. 5대 시정방침으로는 △자치주권 △경제주권 △문화주권 △정주주권 △안전주권을 확정했다. 재정절감·효용성·상호존중은 시정 운영 3대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한편 김재준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달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간소하게 진행된

다. /군산=지송길 기자

“살기 좋은 고창 만들기 최선” 2(題)

인구 지키기 우수 부서·직원 포상

노고 격려의 장 마련 고창군이 올 상반기 인구 5만 지키기(고창애 주소갖기 운동)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임 실적이 우수한 6개 부서와 직원 6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번 포상은 인구 5만 명 선을 사수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 부서와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6개 우수부서는 △인재양성과(최우수) △아산면(최우수) △농업기술센터(우수) △부안면(우수) △보건소(장려) △부장면(장려)이다.

우수직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장미론(최우수) △아산면 이준구(우수) △사회복지과 이순주(장려) △

활력고창상 5개팀 시상

전북 고창군이 조직 내 성과 창출과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활력고창상’ 5개팀을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활력고창 우수팀으로는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대상) △농업기술센터 청년스마트팜TF팀(최우수) △인재양성과(우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려)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장려) 등 총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인구정책팀은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장관상) 수상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 참여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청년스마트팜TF팀은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국가 명승 김제 망해사, 보존·활용 계획 점검

대표 자연유산으로 육성 김제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는 명승의 보존관리 기본방향을 비롯해 경관 보전계획, 공간별 정비계획, 탐방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으며, 참석 전문가들은 명승의 본질적 가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 망해사가 지닌 역사성과 서해 낙조, 진봉산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탐방객 편의와 경관 품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김제시는 이를 종합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고창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별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평촌지구, 성송면 고치지구, 아산면 남산지구, 용계지구, 부안면 진마지구 총 5개지구로 971필지 약36만8207㎡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필지별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경계조정 협의일정은 내달 6일부터 24일 까지 사업지구별 일정에 맞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뤄지며, 자세한 마을별 일정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며,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로타리클럽 “더 큰 나눔과 실천” 다짐

국제로타리 3670지구 고창로타리클럽은 지난 27일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제58·59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임하는 제58대 여산 안재팔 회장과 취임하는 제59대 신홍 강성준 회장을 비롯해 국제로타리 3670지구 윤준섭 총재와 지구 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축하를 위해 정읍·고창 지역 구 국회의원이 윤준섭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배우자 이은주 여사,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로타리의 역할과 발전을 응원했다.

여산 안재팔 이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동안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 덕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창로타리클럽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봉사단체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홍 강성준 취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배 회장님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회원들과 화합해 더 큰 나눔과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섭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는 축사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더욱 활발한 봉사와 우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로타리클럽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국제로타리의 가치인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민선9기 성과 창출 본격화

권익현 군수, 군민 체감 행정 실행력 강화 당부

부안군은 민선 9기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8년간 축적한 성과와 기반을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행정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29일 열린 민선 8기 마지막 연석회의에서 “민선 9기 국정목표와 국정방향이 결정된 만큼 전 공직자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군정의 모든 사업이 군민 삶의 변화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권 군수는 “지난 8년간 부안군은 해상 풍력과 수소도시, 새만금 RE100 산업 기반 등 미래산업의 토대를 착실히 마련해 왔고, 부안형 푸드플랜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등을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는 이러한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의 군정은 단순히 사업 완료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민생 회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군수는 전 부서에 소관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위생·환경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권 군수는 “관내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중독 등 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민선9기 국정목표와 국정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친환경농업 재도약 로드맵 마련

제6차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나서

김제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분야별 농업인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생산유통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고령화와 노



<사진=김제시>

김제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차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력 부족, 인증 유지 부담, 소비시장 변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뒀다.

이런 시 부시장은 “제6차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통해 김제시 여건에 맞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친환경농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부안군 사회복지과(과장 진춘이)는 지난 25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졸포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졸포면 적십자 봉사단, 부안클린케어가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폐가전과 낡은 침대, 농업용 폐기물 등 장기간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주거 공간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이번 사업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사례관리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민원 담당 공무원 소통간담회 개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약속

부안군 민원과는 지난 25일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진절 교육 및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원과 직원들은 다가오는 여름에 맞춰 ‘무더위에 지친 오늘, 친절로 시원하게’라는 구호를 제정하며 청사를 찾은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진절 다짐을 했다.

이어 대민업무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민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한 심도 있는 내용이 이뤄졌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례로 보는 집단·특이민원 대응 실무’ 사이버 교육을 병행 이수하도록 해 특이민원 환경에 대처하는 담당자들의 실무 적응력을 한층 높였다.

교육 후에는 권익현 군수와 직원들이 함께하는 소통간담회가 진행됐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했으며 권익현 군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했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민원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관장이 직접 민원 현안을 챙기고 민원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전기차·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고창군이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전기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67대(승용 39, 화물 28) 신청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고창군에 주소와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전기자)이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로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인이 3년 이상 운용한 내연기관차를 판매 또는 말소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종별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달 1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고창군에 주소와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전기자)이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로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책만이나 아니라 예술과 다양한 창의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크게 여름 독서교실과 여름 방학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여름 독서교실은 “가자 시원한 명화 나들이”를 주제로 오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 명화, 르네상스 대표 명화 등 다양한 명화를 주제로 감상과 독후활동 및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여름 방학반은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품지락 공예 △아로마 생활교실 등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강좌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여름 독서교실과 여름 방학반 모두 내달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문의는 시립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김제=은봉기 기자

완주군, 인구 늘리기 넘어 '정착' 방점

2026-2030 인구정책계획 수립 일회성 진입 탈피 '안전한 정주'· 읍·면 균형발전 새 과제

완주군이 지난 5년간의 인구 성장세를 '안정적 정착'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2026-2030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그동안 완주군은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성공적인 산업단지 유치, 삼봉·운곡 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에 힘입어 인구 10만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왔다.

다만 늘어난 인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머무는 정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도시형 읍과 농촌형 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기본계획은 바로 이 지점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일회성 진입

유인책에서 벗어나 군민이 안정적으로 정착·체류할 수 있는 '종합적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은 '정착이 행복이 되는 미래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출산·양육·교육 환경 조성 △청년의 삶터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더불어 함께 사는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5대 전략, 14개 과제, 3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저출생·고령화에 더해 1인 가구·다문화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읍·면 간 인구 불균형까지, 완주군의 인구구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펴 모든 세대가 완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규 검토 사업으로 30여 개가 새롭게 담겼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부터 양육·교육, 주거, 노후, 정착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군민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로는 △산후조리비 지원 △아픈 아이 돌봄·365 틈새보육 거점 △광역 통학 안심지원 등 출산·양육·교육 분야 12개 사업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청년 공공임대 유치 등 청년 삶터 조성 분야 3개 사업 △1인 가구 생활안심망 지원 등 노후생활 지원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분야 5개 사업 △유학생 정주 패키지 등 함께 같이 사는 외국인 분야 3개 사업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3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인구 10만 달성은 끝이 아닌 새로운 완주 미래 100년의 시지점"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장직 인수위 해단...시정 '밈그림'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비전 7월 1일 민선9기 남원시장 취임식

민선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용택)가 29일 해단식을 끝으로 21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결과보고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인수와 함께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 설정, 공약사업 구체화, 주요 현안 점검 등 새로운 시정 출범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인수위원회는 담당관·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분야별 분과회의와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우선 추진과제를 검토했



<사진=남원시>

으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기업인·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민선9기 시정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으로 확정하고,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기반 구축,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정령행정 실현 등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약사업 실행계획과 정책 제언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마련해 민선9기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남원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9기 남원시장 취임식은 오는 7월 1일 순창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학촌농요 가치 재조명...학술세미나 성료

전문가·주민 모여 전통·발전논의 지역문화 자산 콘텐츠 활용 확대

순창학촌농요의 학술적 가치와 전통·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 순창학촌농요 학술세미나'가 지난 27일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순창학촌농요의 가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순창학촌농요가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전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동원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순창의 음악적 전통과 판소리'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하며 순창의 음악적 전통과 농요, 판소리의 학술적 의미를 조명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순창 건국록 학촌농요 후렴구의 특징과 의미', △노복순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의 '순창 학

촌과 입실 말천방 들노래의 음악 비교 고찰-논매기 소리를 중심으로', △권도희 경북대학교 교수의 '학촌농요의 발전 방향과 지향점'이 차례로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학촌농요의 학술적 연구 확대와 무형유산으로서의 체계적 인보존,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활용 방안 등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학촌농요가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수소산업 산학연관 거버넌스 강화

완주수소연구원 정례회 개최 기업 지원·기술협력 모색

완주군이 완주수소연구원과 함께 지역 수소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29일 완주군은 완주경제센터에서 '2026년 완주수소연구원 제1차 거버넌스 정례회'를 열고, 지역 수소산업 발전 방향과 기업 지원, 기술협력, 정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완주수소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관내 수소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완주수소연구원 거버넌스 위원 약 3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송형수 완주수소연구원 부원

장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흥기 완주수소연구원장의 인사말, 완주수소연구원의 2026년 주요 추진계획 발표, 교육발전지원센터 사업 소개, 기업 및 기관 애로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완주수소연구원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완주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유토론에서는 수소기업과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기업 성장 지원, 수소 관련 기술개발 협력,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연계, 실증 기반 확대 등 수소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비나 FCM, 덕산에테르티지, 일진하이솔루스, BTE, AES Tech, 아헤스, 예코랩, 넥스트에너지, AP GREEN 등 수소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수소에너지고등학교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농기계개발특구 등 주요 기관도 함께했다.

군은 정례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향후 수소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노후 주소정보시설 일제 정비 나서

건물번호판 1천16개 교체 추진 정보정확성제고·도시미관개선

순창군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색이나 훼손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계면과 동계면, 풍산면, 적성면, 유등면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후되거나 훼손

된 건물번호판 1,016개를 새롭게 교체할 계획이다.

건물번호판은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는 주소정보시설로, 일상생활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주소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정비가 완료되면 주소 정보 이용 편의 향상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외국인 주민 디지털·AI 교육 운영

AI 번역·정보검색 교육 등 실생활 활용 중심 정착 도와

완주외국인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지역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전북에이아이(AI)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추진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쉽고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1차 과정(7월 5일~7월 26일)과 2차 과정(8월 2일~8월 30일)로 나눠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창햇살장조센터 3층 평생학습배움터에서 진행된다. 차수별 최대 12명의 외국인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AI) 번역과 쉬운 한국어 기능 활용, 음성 기반 질의응답, 생활 표현 확인 등 기초 과정과 생활정보 검색, 문서 요약, 일정 관리, 민원 및 공공정보 이해, 허위정보 판별 등 실생활 중심의 활용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주민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와 생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광치복합문화센터, 근로자 생활거점 '안착'

청년근로자 정착 기반 마련 사매산단지 근로자도 정주 지원

남원시는 광치1·2농공단지 근로자의 문화·복지·편의·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 '광치복합문화센터'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합 생활공간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5. 11월 광치산업1길 9(광치동) 일원에 광치복합문화센터를 조성했다. 센터는 대지면적 3,556㎡, 건축면적 766.53㎡, 연면적 1,894.34㎡ 규모로, 복합문화동과 기숙사동 2개 동으로 구성됐다.

복합문화동은 근로자의 여가, 학습, 운동, 식사, 주거 기능을 한곳에서 지원한다. 북카페, 평생학습실, 상담실, 연구 확대와 무형유산으로서의 체계적 인보존,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활용 방안 등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학촌농요가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숙사가 들어섰다. 특히 기숙사는 총 12실 규모로 조성돼 광치1·2농공단지 근로자는 물론 사매산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산업1단지협의회(회장 안광섭)가 맡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1월 산업1단지협의회와 광치복합문화센터 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남원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광치복합문화센터 기능 보강 공사를 마쳤으며, 3월부터 요식업체 모임을 거쳐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기숙사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과 운영에 들어갔다. 일터 가까에서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마련되면서 관외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의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남원시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지 내 기존 노후시설의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제9회 아동권리영화제 작품 공모 시작

완주군이 오늘부터 '제9회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 작품공모전을 시작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는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영화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표현하는 국내 대표적인 아동권리축제 자리 잡았다.

올해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아동권리의 빛과 그림자'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달한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누리는 편리함과 기회(빛), 그리고 디지털 소외,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직면한 위험과 문제점(그림자)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풀어내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18세 미만 개인 또는 팀)



또는 가족팀(아동·청소년 포함)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10분 이내의 영상 작품이라면 장르 제한 없이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접수작품은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며, 본선작들은 오는 11월 14일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누리집(wanju.go.kr/wanjuc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배움결업2' 평생학습매니저 역량 강화

남원시는 평생학습 현장을 이끄는 매니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배움결업2' 평생학습매니저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배움결업'은 남원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남원시만의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평생학습매니저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주도적인 평생학습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 평생학습매니저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함께해 지역 사회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교육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원시 평생학습관 본관 107호에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6명 내외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참여 신청은 남원시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 참여 실적은 내년도 평생학습매니저 모집 시 가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발효맥주 홍보루임 인력양성과정 마무리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은 발효맥주에 관심 있는 순창군민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발효맥주 홍보루임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맥주 제조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홍보루임 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순창군이 지역 발효식품의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홍보루임 맥주 인력양성 과정이다.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군민들이 직접 맥주를 만들어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맥주의 역사와 홍보루임 기초 이론을 시작으로 세계 맥주의 종류와 특징을 배우고, 맥주 제조 실습까지 양조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발효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과 소규모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발효의 고장인 순창에서 전통주에 이어 현대 맥주까지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순창의 발효문화를 즐기고 널리 알리는 데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경찰 협력 학교폭력 예방교육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섰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완주경찰서와 연계한 순회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최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또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지역 치안과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직접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엑스(O·X)퀴즈와 상황별 사례 퀴즈, 질의응답 등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경찰관과 청소년지도사가 함께 진행하는 소통 중심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도 완주경찰서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예방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제1회 무주군장애인체육회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29일 부남면 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무주장애인체육회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회 육성과 생활체육 증진으로서 저변 확대를 위해 무주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무주군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80여 명의 선수가 4인 단체전 경기를 통해 실력을 겨루며 상호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무주군장애인체육회 회장)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 배성 무주군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을 비롯한 선수 등 1백여 명이 함께 해 장애인파크골프 발전과 대회 성공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에 살고 있는 파크골프 바람이 동호인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 전체에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며 “자연특성 무주가 파크골프하기 좋은 곳으로도 정평이 나서 전국의 동호인들이 몰려오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위한 백미 기탁

장수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항숙)는 하절기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5일 번암면사무소에 백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백미 50포대로, 무더위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항숙 위원장은 “무더위로 지쳐 있을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들과 뜻을 모아 백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민선9기 진안군정 비전 확정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9기 진안군정의 군정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이 확정됐다.

29일 진안군에 따르면 민선 9기 진안군 비전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이 선순환하는 진안을 만들어 군민 행복과 기본사회를 최우선으로 설정해 향후 군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기본생활, 기본 주거 등을 바탕으로 진안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위한 6대 지표도 마련했다.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기본사회, 든든한 미래를 여는 선진농업, 상생으로 번영하는 민생경제, 활력이 넘치는 건강 치유 도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이다.

민선9기는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농업 실현, 치유도시 활성화, 활발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민 기자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철저!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 29일 안전요원 사전 교육

무주군이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물놀이 안전 계도와 환경 조성에 나서는 등 선제적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9일에는 무주군 민의집에서 ‘2026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무주군 물놀이 관리요원과 하천 내 계도 요원을 비롯한 무주읍과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물놀이 안전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 교육은 물론, 빈틈

무주소방서 유광규 소방교 및 (사)스포츠안전협회 류승민 대표가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인명구조 요령 및 △안전 장비 사용법 등 실습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물놀이 관리 요원들에게는 근무 조끼를 비롯한 모자, 호루라기 등 필수 물품이 지급됐다.

강미경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은 물놀이 안전요원들의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물놀이 안전 관리 특별대책 기간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여름나기에 더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사전 교육은 물론, 빈틈

없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주군을 찾는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7월 1일부터 후도(무주읍), 지전(설천면), 하골암(부남면) 관리지역 3개소에 안전요원 14명을 고정 배치하고,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4개 읍면 위험구역 및 비관리 지역에서는 13명의 순찰 계도 요원들이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환, 밧줄 등의 안전시설을 비치하고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을 비롯해 부표 등도 설치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민선9기 정책제안 창구 개설

7월 10일까지 군 홈페이지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9기 군정 실현을 위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에 개설된 정책제안 창구인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군정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 생활 불편 개선 사항, 미래 비전 제안 등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인수인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선9기 군정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농업·복지·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해 주요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의 실행계획 수립, 신규정책 과제발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임실군 홈페이지 내 별도 게시판을 통해 운영되며, 임실군민은 물론 임실군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인수위원회는 접수된 제안들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해 군민 중심의 정책과제와 민선9기 군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

민·관·기업 ‘맞손’

장수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 장수군산림조합, ㈜유니드비티플러스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ESG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중심지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국산 목재의 계획적 생산과 공급,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민·관·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

다. 협약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일재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장,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 한상준 ㈜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계남면과 장계면 일원 878ha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림경영 모델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입해 조림과 숲가꾸기, 임목 수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목재의 계획적 생산 및 공급 △MDF 등 목재산업 원료용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산림자원의 부가 가치 제고와 국산재 공급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유니드비티플러스는 국산 원목의 지속가능한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군정 밑그림 구체화

군민 체감형 정책 마련 박차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마무리하며,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핵심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현장에서 25개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의 주요현안과 공약 연계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선9기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확보방안을 비롯해 조직 운영과 인사 시스템, 농업·경제·관광·복지 등 분야별 주요현안,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고령화 대응, 생활SOC 확충, 주민 생활 불편 개선 등 군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인수위원들은 단순한 업무 추진 현황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별 정책 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현장 수요,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마무리하며,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핵심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임실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군정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선9기 군정 비전과 공약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우선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7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 성료

전통 판소리 계승 미래 명창 발굴의 장 마련

장수군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사)금강유영애소리보존회와 공동으로 제17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암 주논개의 총칭과 예술정신을 기리고, 우리 전통 판소리의 계승·발전과 우수한 소리꾼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명창부, 일반부, 일반논개부, 신인부 개인, 신인부 단체,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논개부 등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291명의 소리꾼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번 경연에서는 △명창부 대상(국회의장상) 김재우(서울특별시)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신수연(서울특별시) △일반논개부 대상(국회의원상) 정하윤(서울특별시) △신인부 개인 대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이원재(전북 남원) △신인부 단체 대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김은선 외 3인(전남 영암) △고등부 대상(교육부장관상) 변관영(전북 남원) △중등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우민지(서울특별시) △초등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서지아(대구광역시) △초등논개부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김강한(전북 장수)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지난 연도 12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방세징수율, 징수신장율, 세수신장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목표달성도 등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평가 기간 동안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해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군은 하반기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하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도랑파랑 춤추는 발가락’ 공연 성황리

장수군은 지난 27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술담은나라’의 네 번째 공연인 ‘도랑파랑 춤추는 발가락’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재즈, 퓨전국악을 접목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공연예술의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무대로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이대정량 지휘와 광승연 연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국제콩쿠르 수상 경력을 지닌 바리톤 석성근, 피아노 최아현, 플루트 김정은, 색소폰 손주앙을 비롯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100분간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연은 장수군을 넘어 인근 시·군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클래식과 재즈, 국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예술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공연예술 콘텐츠를 개발·육성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장려

임실군은 지난 26일 임실시장을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조기 사용을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날을 맞아 군정 경제교통과 직원들과 임실시장상인회 상인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통시장을 돌며 군민들에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기한은 7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양미경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을 앞두고 미사용에 따른 군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내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조기 사용을 부닥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고창 대산면 민민회, 태봉산 둘레길 정비

고창군 대산면 민민회는 지난 25일과 26일, 농협 경제지구 중도개발사업소와 함께 고창군 대산면에 위치한 태봉산 둘레길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및 경관 보존을 위해 진행됐으며 민민회 회원들과 중도개발사업소 직원들은 벌목작업과 잔가지 제거,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약 1km의 둘레길 정비를 완료했다.

대산면 신점식 민민회장은 "태봉산 둘레길은 지역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매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둘레길 이용 편의성이 한층 향상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둘레길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준 농협 중도개발사업소장은 "대산면민의 소중한 자산인 태봉산 명품 둘레길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 중도개발사업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성광교회, 바자회 수익금 200만원 기탁

완주성광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한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주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완주성광교회는 지난 24일 용진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교회가 주축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마무리한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주민들이 사고판 물품의 수익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복지 재원으로 다시 환원되는 구조다.

오양록 담임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열어준 교민들과 주민들의 정성에 감동했다"며 "이 소중한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용진읍의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정읍시에 1,030만원 기탁

상생 발전·기부문화 확산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윤여일)는 29일 정읍시청에서 기탁식을 갖고 상생 발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고창사랑기부금 103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윤여일 본부장, 한전 관계자와 시 공무원 등 5명이 참석해 상생의 뜻을 나눴다.

전북본부는 지난 2024년 2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 10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30만원

을 쾌척했다. 이로써 3년 연속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윤여일 본부장은 "이번 기부가 정읍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3년 연속 고창사랑기부제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한전 전북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



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 아동 위한 반찬 나눔

익산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29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지회장 이명희)가 먹거리 나눔 행사를 통해 드림스타트 20가정에 밀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 80여 명은 간장돼지불고기과 백김치를 정성껏 준비했다. 조리된 반찬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신속하게 전달됐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반찬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번이 두 번째 나눔이다.

이명희 지회장은 "맛있게 잘 먹었다는 아이들의 감사 인사 한마디가 가장 큰 보람이자 나눔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부안군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지원

보건위생용품 전달

부안군은 JB전북은행이 29일 지역 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100상자(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한 보건위생용품은 5종의 생리대와 정결티슈, 파우치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 배오석 부안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보건위생용품 100상자는 군 관내 13개 읍면 및 시설에 배부돼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종구 부행장은 "전북은행이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익현 군수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보안면 여성자원봉사회, 물김치 나눔

부안군 보안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청자골문화센터에서 물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취약계층 500여명에게 직접 만든 물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지역 내 홀몸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행사 첫날인 지난 27

일부터 청자골문화센터에 모여 물김치 담그기에 필요한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채소 세척과 다듬기, 재료 준비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정성을 담아 물김치 만들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준비한 재료를 활용해 물김치를 완성하고 포장 작업까지 마친 뒤 대상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노후화된 외벽 도색 봉사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27일 백산면 일원에서 노후화된 외벽을 세척하고 페인트를 도색하는 "마음을 담은 색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씩 추진되고 있으며, 오랜 세월 풍화와 오염으로 훼손된 벽면을 정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마

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에 참여한 칠봉회(칠하는 봉사회, 회장 고성훈) 단체는 페인트칠 전문봉사단으로 활동 중이며 도색 작업 과정에서 발견되는 노후 전선 및 전등 교체 등 간단한 보수 작업까지 실시해 마을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더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 '중앙종묘농약사', 취약계층 위한 물품 기부

완주군 삼례읍 중앙종묘농약사 김태형 대표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한넛물 나눔가게'에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나눔이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동빈 삼례읍장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김태형 대표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물품과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빈틈없이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워 한넛물 나눔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후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함께해요!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는 5초.

사용하는데는 5분, 분해하는데는 500년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一事一言〉



‘전북 패싱’의 위선, 전북은 호남이 아닌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최근 포털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른바 ‘호남 반도체 투자설’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야합을 바라보는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마저 느끼게 한다. “단군 이래 최대”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가며 수백조 원이 호남에 투자될 것처럼 대서특필되었지만, 그 방대한 기사 어디를 찾아봐도 ‘전북’이라는 두 글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과 정치권이 영무 새처럼 울어대는 ‘호남’이라는 단어 속에서 전북은 철저히 지워지고 소외되어 있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호남이 아니라 말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전문화적인 자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선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며, 전후방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해 지역 경제를 튼튼히 바꿀 미래 먹거리가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역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전북에 이보다 더 절실한 기회는 없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 거대한 투자 담론에서 전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유령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기사와 정치권이 말하는 ‘호남’은 철저한 위선이자 착시현상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투자처는 예외 없이 광주와 전남이다. 전북을 둘러리 세워 ‘호남권 대형 유치’라는 명분과 정치적 당치만 키워놓고, 실속은 자기들끼리 다 챙기겠다는 알뜰한 셈법이다. 전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철저히 배제한 채 광주·전남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호남’이라는 광역적 수사로 포장하는 것은 전북도

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전북이 빠진 투자 계획이라면, 이제는 가식적인 ‘호남’이라는 단어를 집어치우고 정직하게 ‘광주·전남 투자’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중앙 정치권의 이러한 전북 소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철저한 역학 관계와 표 계산에 따라 광주·전남에는 첨단 미래 산업이라는 거대한 ‘고기’를 덂석 던져주고, 참다못해 서러워 울어대는 전북에는 고작 푼돈 수준의 예산이나 생색내기용 ‘과자 부스리기’만 쥐어주며 달려왔다. ‘호남 경제’라는 달콤한 말로 전북의 희생과 양보를 당연시하면서, 정작 알맹이가 있는 핵심 먹거리를 나눌 때는 철저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들었다. 이번 반도체 투자 논란은 그 치사하고 불평등한 관행의 결정판이다.

전북이 과연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밀려날 만큼 인프라가 부족한가. 전민의 말씀이다. 오히려 전북은 대기업들이 탐낼 만한 압도적인 무기를 쥐고 있다. 광활하고 준공이 가시화된 새만금의 넓은 부지는 수도권이나 여타 지역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강점이다. 어디 그뿐인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펼쳐진 전북의 풍부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전력 포화 상태에 직면한 수도권 클러스터를 대체할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이다. 넓은 땅과 청정에너지라는 반도체 공장의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전북이다.

조건이 완벽함에도 전북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가 중앙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철저히 무능했거나, 광주·전남 중심의 호남권 정치 역학 관계에 눌려 스스로 발고개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기업 투자설을 군불 때듯 지피는 정치인들이, 정작 알짜배기 미래 산업을 논할 때는 전북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묵과해야 하는가.

대기업의 투자가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 정치적 출판에서조차 전북이 둘러리 소비되는 현실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전북은 광주·전남의 둘러리가 아니며, 필요할 때만 덩치를 불러주는 정치적 도구 아니다.

이제 전북도민과 지역 사회는 ‘호남’이라는 허울 좋은 연대감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허울뿐인 호남의 넉넉한 품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몫을 당당히 요구하는 냉정하고 영악한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새만금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과 부지를 무기로 삼아, 전북만의 독자적인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 로드맵을 정부와 기업에 대고 다그쳐야 한다. 중앙 정치권에 기죽어 대기업의 ‘전북 패싱’을 방관하는 지역 정치권에도 매서운 회칙을 들어야 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지키고 저널리즘의 바른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것, 그것이 전북타임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위선적인 호남론’을 격렬히 비판하는 이유다.

사설

‘삼전닉스 호남투자’에 전북은 없다

요즘 지면과 정치권을 달구는 이른바 ‘삼전닉스 호남 팩토리’ 논란을 바라보는 전북도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호남에 이뤄질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정작 거론되는 지역은 광주와 전남 중심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남이란 말 속에 전북은 포함되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동원되는 허울 좋은 지역 명칭에 불과한가.

호남이라는 이름은 전북과 광주·전남을 함께 아우르는 역사적·지리적 명칭이다. 그러나 국가전략산업 배치 논의만 시작되면 전북은 슬그머니 지워진다. 정치권은 ‘호남 투자’라는 말로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인 양 포장하지만, 실상은 광주·전남 투자에 가깝다. 전북 도민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착시이자 기만이다.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박수를 받고, 전북은 둘러리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북 정치권과 행정의 대응이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광주와 장성 중심으로 가닥을 잡는 동안 전북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 “전북에도 일부를 배치해 달라”고 말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전략도 협상도 아니다. 국

가전략산업은 읍소로 얻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경쟁력으로 따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은 매번 ‘소외됐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 산업 입지와 인력, 전력, 용수, 기업 생태계를 묶어낼 치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 청년 인구, 세수 기반을 좌우할 미래 생존의 문제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전북이 빠진 ‘호남 투자’를 호남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광주와 전남의 성과를 깎아내리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북 없는 호남 투자를 호남 전체의 승리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북은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 ‘삼전닉스 호남투자’에 전북은 없다. 그렇다면 전북 몫의 국가전략산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새 도정과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호남이라는 큰 이름 뒤에 숨어 박수칠 때가 아니다. 전북이 빠진 균형발전은 균형발전이 아니다. 전북은 더 이상 둘러리도, 구색 맞추기도, 사후 읍소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를 넘어선 전략이고, 구호를 넘어선 실행이다.

독자 투고

외국인 무면허 운전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운전자 또한 늘어났다. 대부분은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무면허 운전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운전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 제도나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

전대를 잡기 전 본인의 면허가 국내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주민들 또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안전한 교통문화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외국인 주민과 고용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혜인

오늘의시

진실보다 힘든 것 / 박노해

진실이 쫓아 피고 진실이 악어오고	실은, 거짓이 더 힘든 일이다	보라, 마침내 거짓은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느니
진실이 빛나기는 참으로 험겨운 것이지만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치고 거짓은 죽음을 불러	실은, 진실이 진실로 사는 길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낯에는 일을 하고 야간엔 선린상고에서 수업을 들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이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7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 6개월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발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세상

전북타임스가 동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同行

길을 같이감

JBT 전북타임스신문

김제시 귀농·귀촌으로 지역 활력 찾는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꾸준한 성장세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확대

김제시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단순한 인구유입을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제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가구는 698가구에서 1,024가구로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삶과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희망하는 생활형 귀촌이 확대되며 농촌 정착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귀농·귀촌인은 농업과 공동체 활동 참여 등 농촌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변화하는 정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주거, 영농기반 구축, 지역 융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이론부터 현장까지,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

시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전입 초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귀농귀촌 기본교육을 실시해 47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작목별 재배기술, 농작업 안전사용법 등 총 16강, 80시간 교육을 운영했으며, 최종 35명이 수료했다.

교육생들은 농업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영농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와 농촌생활 적응 방법 등을 함께 배우며 귀농 준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선배 귀농인의 경험담과 사례 중심 교육은 귀농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귀농귀촌 심화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 농업경영, 농촌생활 이해, 마케팅 등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 50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선배 귀농인의 사례 공유와 현장 견학을 병행하여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귀농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농업 관련 제도, 농촌생활 적응 방안 등을 함께 안내하여 실질적인 정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선도농가와 연계한 현장 중심교육도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 선도농가 6명, 연수생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수생이 희망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생은 선도농가로부터 직접 영농기술과 재배 노하우를 배우며 실제 농업 현장을 경험하고, 선도농가는 영농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영농 초기 작목 선택과 재배기술 습득이 중요한 만큼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참여 연수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지속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 함께하는 농촌,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시는 귀농·귀촌인의 영농기술 습득과 지역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멘토·멘티 컨설팅 사업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멘토 4명, 멘티 12명으로 구성되어 선배 귀농인의 경험과 노하우, 작목별 재배기술, 영농상담 등을 제공하여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택 확보 방안, 농촌 일자리 정보, 지역사회 적응 등 실제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상담하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갈등해소 체험학습과 마을환영회,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하는 농촌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살아보며 준비하는 귀농,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실제 농촌생활을 경험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4호)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기술교육과 농촌생활을 병행한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농촌 정착을 희망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환경 적응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 앞 텃밭을 활용한 농업 실용교육을 운영하여 희망작목을 직접 재배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농경험과 농촌생활 적응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귀농인의 안전한 영농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시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을 마련하여 농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를 귀농인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실습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유희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도로 확장 및 주차부지 조성 등 실습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트랙터, 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를 활용한 조작 실습과 안전수칙 교육을 본격 운영하여 신규 귀농인의 영농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영농기반부터 주거까지, 안정적인 정착 지원

시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주택수리 지원사업,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소형농기계 등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 수리 지원은 노후 주택 리모델

링, 보일러 교체 등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 최대 7천5백만원을 연 2%, 5년거치 1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영농기반 구축과 주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시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7년에는 지역주민과 귀농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귀농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8호가 준공될 예정으로, 귀농·귀촌 초기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 안정과 정착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의 유입은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교육, 주거, 영농기반 구축, 지역 융화 프로그램 등 귀농·귀촌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p>공모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p> <p>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p> <p>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p>	<p>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중·고학생</p> <p>응모 방식 8월지 도과지(1)A 용지</p> <p>응모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p>
<p>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p> <p>전화 : (063)282-5601 / 010-7454-1559</p>	
<p>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p> <p>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상(2명)</p> <p>우수상(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상</p> <p>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p>	<p>특별상(3명) 국회의원상</p>

기타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주관,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전북타임스신문